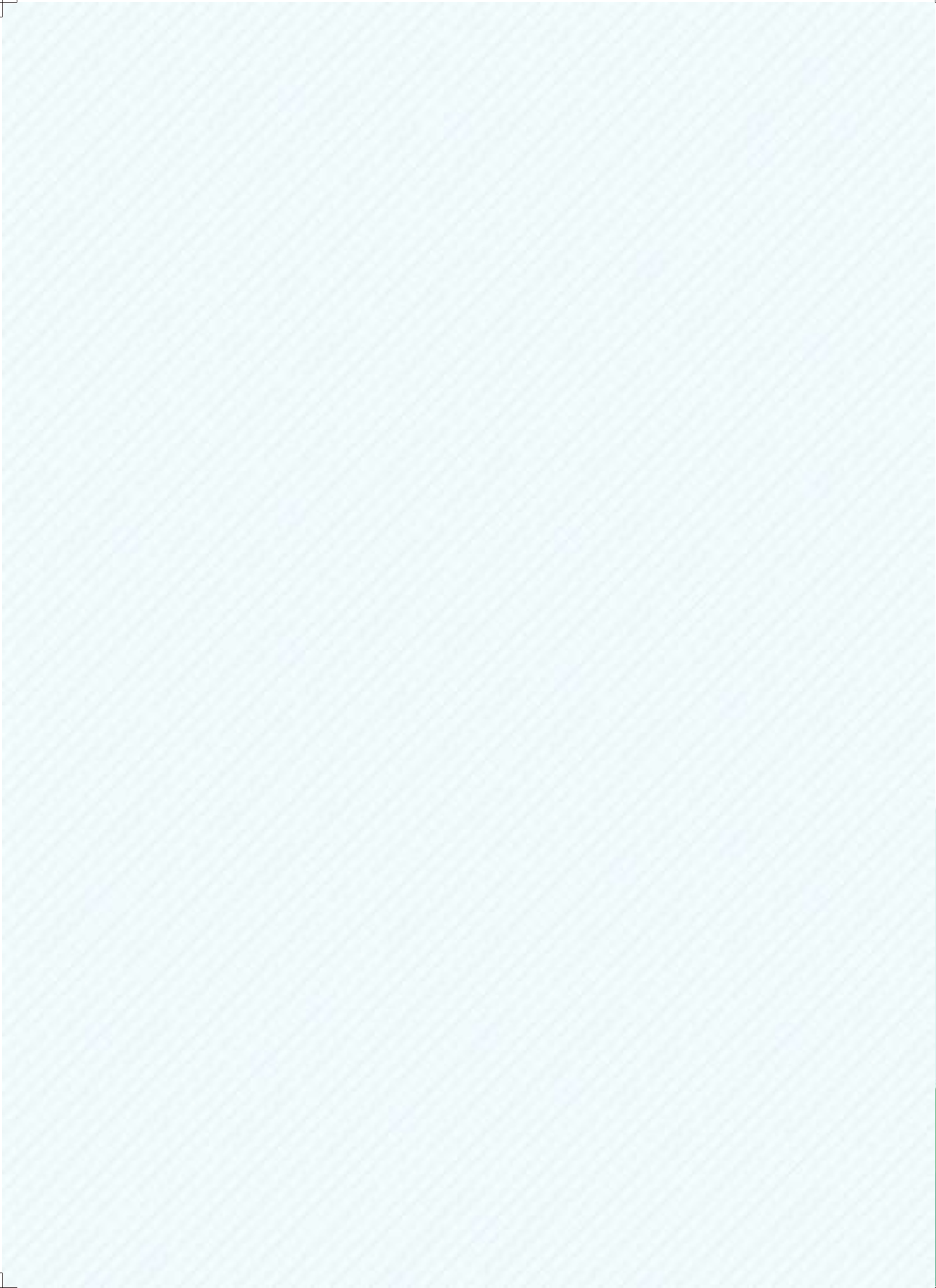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00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우수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0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우수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우수 사례집은

'책 읽어 주세요'를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학교·작은도서관 사례를 모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우수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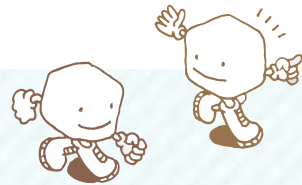


프로그램 목적

- 어린이의 즐거운 독서경험 형성을 위한 “책 읽어주기” 전국 확산 지원
- 어린이의 언어력 향상,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 책 읽는 대한민국 이미지 조성 및 확산

프로그램 내용

- | | |
|------|---|
| 대상 | 전국 도서관 및 대학교(독서 동아리 및 관련 단체) |
| 기간 | 연중 |
| 주요내용 | - 전국 도서관 및 학교에서 사서 및 자원 봉사자가 어린이에게 1:1로 ‘책 읽어주기’ 활동 실시
- ‘노란색 앞치마’를 입고 ‘책 읽어주기’를 실시하여, <노란색 앞치마 = 책 읽어주는 사람>으로 이미지 조성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원 사항: 노란색 앞치마 및 매뉴얼 제공, 운영자 워크숍 진행 등 |



Contents

목차

공공도서관



- | | |
|---|----|
| 01. 강남구립 즐거운도서관 | 08 |
| 공부의 도시에서 책의 즐거움을 찾다
-한연주 사서 | |
| 02.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 18 |
| 저도 책 읽어 주세요!
-함수민 사서 | |
| 03. 대구시립 수성도서관 | 24 |
| 수성도서관, 책할머니와 함께하는 ‘책 읽어 주세요’
-류주연 사서 | |
| 04. 부평구립 갈산도서관 | 32 |
| 책으로 잇는 마음, 함께 자라는 ‘책 읽어 주세요’
-김진아 사서 | |
| 05. 여주시립 이순신도서관 | 40 |
| “함께 읽어요, 함께 자라요” 자원 활동가가 찾아가는 ‘책 읽어 주세요’
-김주희 자원 활동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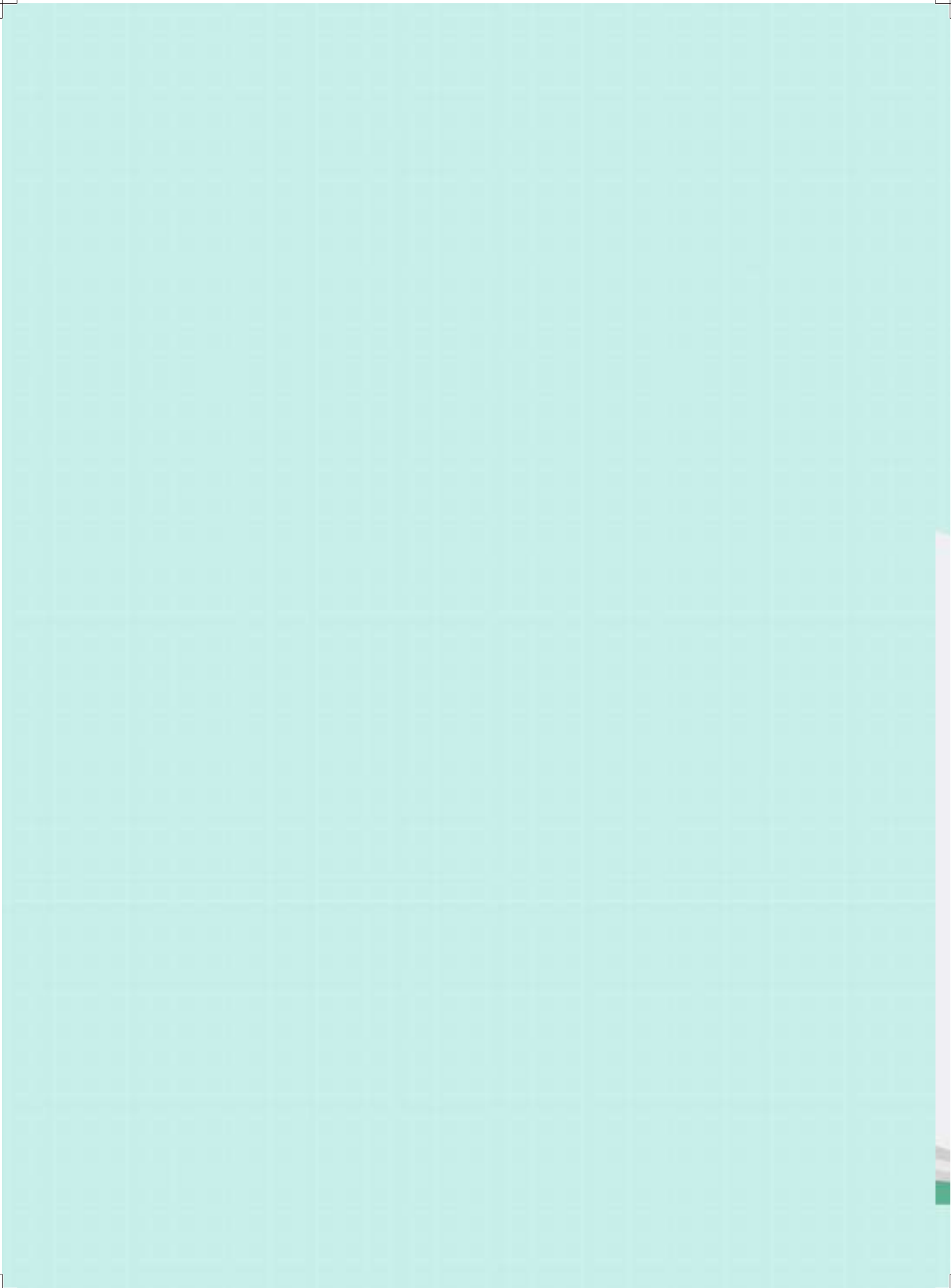
Contents

목차



학교·작은도서관

- 01. 강릉여자고등학교** 52
책으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책 읽어 주세요’
-정성희 사서
- 02. 강릉 성덕초등학교** 58
아침 ‘책 읽어 주세요’를 통해 학교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
-차예리 사서교사
- 03. 남양주시 장내중학교** 64
책으로 이어진 마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책 읽어 주세요’
-장유진 사서교사
- 04. 양산 덕계초등학교** 72
오늘도, 책 읽어 주세요!
-이미영 사서
- 05. 울산 대송고등학교** 76
학교와 지역을 잇는 낭독 프로젝트 ‘책 읽어 주세요’
-김지형 사서교사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우수 사례집

공공도서관

01. 강남구립 즐거운도서관 08

공부의 도시에서 책의 즐거움을 찾다

02.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18

저도 책 읽어 주세요!

03. 대구시립 수성도서관 24

수성도서관, 책 할머니와 함께하는
'책 읽어 주세요'

04. 부평구립 갈산도서관 32

책으로 잇는 마음,
함께 자라는 '책 읽어 주세요'

05. 여주시립 이순신도서관 40

"함께 읽어요, 함께 자라요"
자원 활동가가 찾아가는 '책 읽어 주세요'

01

강남구립 즐거운도서관

“공부의 도시에서 책의 즐거움을 찾다”

- 강남구립 즐거운도서관 사서 한연주



- 기간 2025년 1월~12월(토)10:00~12:00(총 25회)
- 장소 강남구립 즐거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 대상 유아, 어린이
- 인원 253명
- 내용 -매주 토요일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사서와 자원봉사자가 그림책을 읽어주며
지역 어린이의 상상력과 표현력 향상,
독서에 대한 흥미와 습관 형성에 기여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학원가 중심지인 대치동에 위치하여 학습 중심 독서가 발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책을 통해 잠시라도 쉽고 상상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제2외국어 학습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라 한국어 읽기와 말하기에 자신감이 부족한 어린이가 한국어 표현력과 어휘력 향상, 책 읽기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 운영

1) '책 읽어 주세요' 운영 방법

즐거운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다양한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는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점은 사서가 주제독서를 준비하지만, 어린이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해 가져오도록 권장한다는 점이다.

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독서 활동이 시작되며, 선택권을 가진 어린이가 경험한 자기주도성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흥미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어린이와 자원 봉사자가 함께 소리 내어 책을 읽은 후 진행하는 종이접기, 색칠하기 등의 독후활동은 어린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의 경험에 공감하는 적극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원 봉사자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는 독서 활동을 세대 간 소통과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따뜻한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고, 도서관을 책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2) 월별 활동-4월 사례

회차 및 일정	참여자 수	내용	진행
1회 / 4.5.(토)	10명	- 사서선정도서 읽기 : 『우리 가족은 정원사입니다』, 조안나 게인즈, 나는별, 2020 - 어린이들이 선정한 그림책 읽기	이*서(재능기부자), 홍진민 사서
2회 / 4.12.(토)	14명	- 사서선정도서 읽기 : 『책이 사라진 세계에서』, 댄 야카리노, 다봄, 2023 - 어린이들이 선정한 그림책 읽기	김*정(재능기부자), 한연주 사서
3회 / 4.19.(토)	8명	- 사서선정도서 읽기 : 『도서관의 비밀』, 통지아, 그린북, 2009 - 어린이들이 선정한 그림책 읽기	홍진민 사서
4회 / 4.26.(토)	11명	- 사서선정도서 읽기 : 『지구를 지켜줘!』, 줄리언 레넌/바트데이비스, 키즈엠, 2019 - 어린이들이 선정한 그림책 읽기	김*정, 이*민 (재능기부자)
합계	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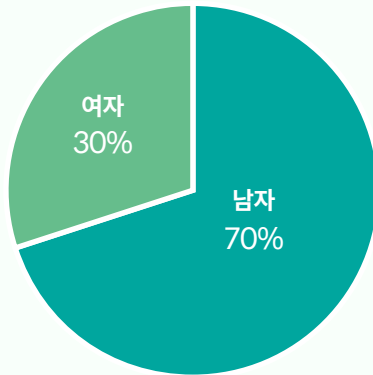
3) 홍보

-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DID 안내문 게재
- SNS 홍보물 업로드
- 도서관 회원 SMS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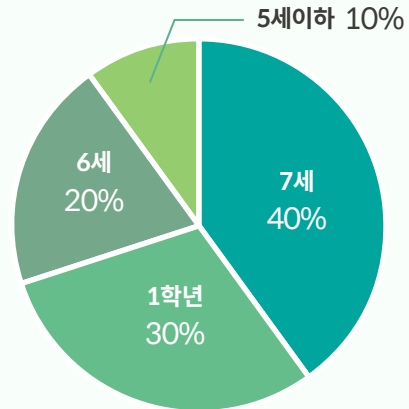
4) 만족도 조사

- 설문기간 : 2025. 7. 1.~7. 19.
- 설문 참여자 : 상반기 참여자 10명 (온라인)
- 응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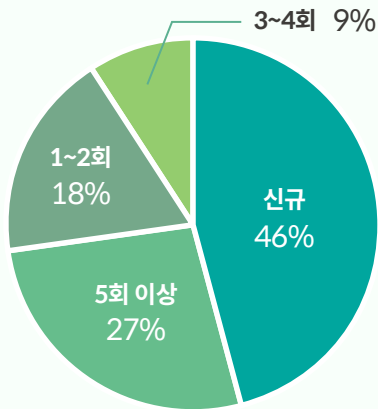
① 설문 참여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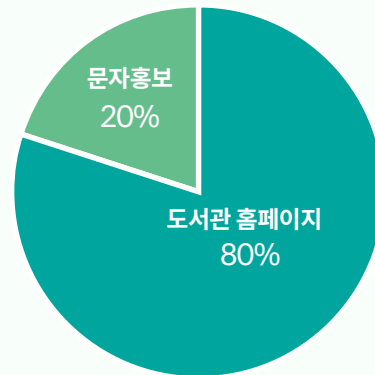
< 참여자 성별 >



< 참여자 연령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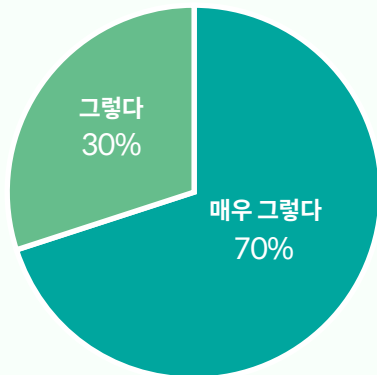


< 25년 행사 참여횟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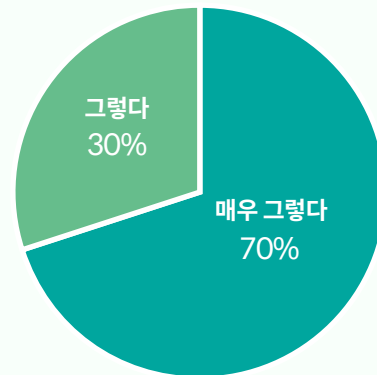


< 프로그램 인지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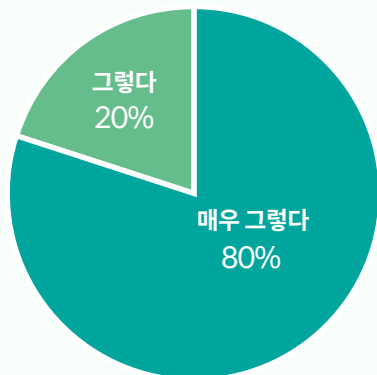
② 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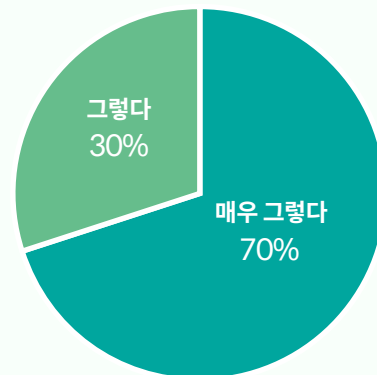
< 전반적 만족도 >



< 알게된 정보의 도움 >



< 강사 만족도 >



< 수업 만족도 >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이 매주 꾸준히 운영되면서 즐거운도서관을 찾는 어린이에게 토요일 오전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따른 신뢰 기반 성과이다. 부모님을 따라오던 어린이가 스스로 시간에 맞춰 찾아오고, 함께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즐거운도서관은 대치동 어린이의 생활 속에 즐겁고 따뜻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원 봉사자에게는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드러났다. 첫째,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해 익숙해진 어린이는 책 읽기보다 독후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둘째, 양질의 독후활동을 하려면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가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제약에 따른 한계가 있다. 셋째, 날씨나 계절의 영향에 따라 참여 인원의 변동 폭이 크다. 주말 오전에 운영되는 장기 상시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자원 봉사자 소감



- ① 유*주: 어린이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전의 ‘책 읽어 주세요’는 저에게도 기다려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와 좋은 시간 공유하고 싶습니다.
- ② 박*욱: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힐링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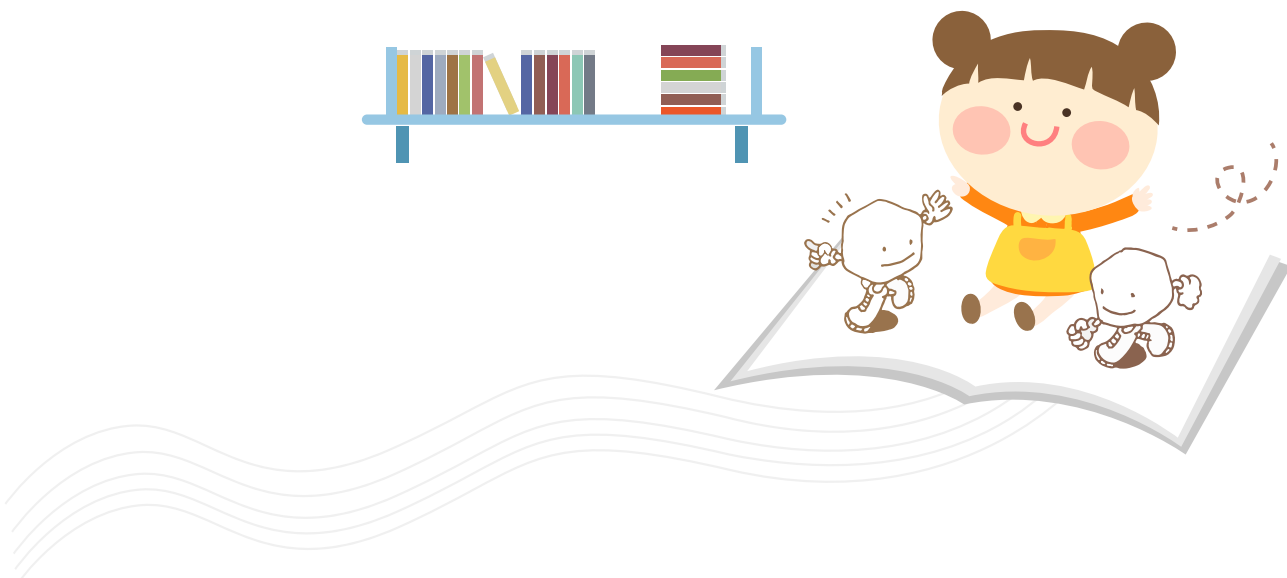
 부록 - 활동사진





 부록 - 활동사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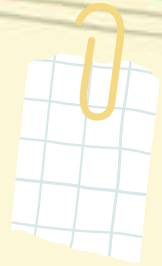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저도 책 읽어 주세요!”

-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사서 함수민



- 기간** 2025년 3월 ~ 12월(화, 목) 16:00~17:00
- 장소** 등빛도서관 유아자료실
- 대상** 유아 및 어린이 이용자
- 인원** 94명 (71회 누계)
- 내용**
 - 매주 화, 목요일에 자원 봉사자 중심으로 진행
 - 유아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가져오면 자원 봉사자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운영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유아자료실 활성화와 이용률을 높이고,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독서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 프로그램 운영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 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1월에 1365 자원봉사포털, 게시판과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했고, 이후에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장기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원 봉사자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의 지속성과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운영 시간을 고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3월부터 유아자료실 이용자가 많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별도의 모집 없이 당일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자료실 앞에 홍보용 배너가 세워지고, 노란 앞치마를 입은 봉사자가 자리에 앉아 아이들을 맞이한다. 안내 책자를 비치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운영 과정에서 정한 원칙은 단 하나!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가져와 “책 읽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책 읽기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봉사자의 자율에 맡겼다. 봉사자의 책 읽는 방식이나 책을 즐기는 아이들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책이라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책 읽기 경험이 이루어진다.

1:1로 진행하기 때문에 봉사자는 아이의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고 아낌없이 칭찬하며 교감을 쌓을 수 있고, 책 읽기가 끝난 후에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스스로 책을 들고 봉사자에게 다가갈 만큼 친근해진다. 이제 ‘책 읽어 주세요’는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았다.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아이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고,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책을 혼자 읽을 때는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도 누군가가 읽어주면 금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면 책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다음 독서로 이어졌다. 스스로 책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독서 능력을 기르고, 관심 분야를 자연스럽게 발견한 아이는 흥미 있는 책을 읽고 즐거움을 느끼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초반에는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다. 하반기부터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향후 SNS 홍보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Tips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영 시간을 정례화하여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감
**담당자 소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달려와 ‘책 읽어 주세요!’를 외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이면 조용하던 유아자료실이 책 읽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덩달아 마음이 들뜨습니다.

참여자 소감

- ① 이*정: 어린이들과 독서 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름다운 그림 책을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따뜻해지면서 동심과 감수성이 살아났습니다. 도서가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 ② 김*민: 매주 꾸준히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책을 읽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듣는 모습을 보며 보람도 느끼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부록 - 홍보물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 배너



자원봉사자 모집 포스터



SNS 카드뉴스



 부록 - 활동사진



책 읽어주기 활동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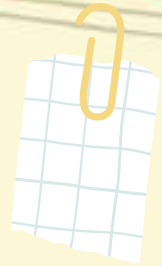
대구광역시립 수성도서관

“수성도서관,
책할머니와 함께하는 ‘책 읽어 주세요’”

- 대구광역시립 수성도서관 사서 류주연



- 기간 2025년 1월~10월
- 장소 어린이자료실
- 대상 7세 이하 유아
- 인원 531명 (38회)
- 내용
 - 유아 및 보호자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 하기
 - 도서관 인근 어린이집·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 자원 봉사자·사서가 함께하는 학습동아리 ‘책할머니 그림책 모임’ 활동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고자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림책을 통해 아이는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도서관 이용 습관을 형성하며, 나아가 조손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 운영

1) 운영 방법

- 운영 기간: 2021년 ~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 봉사단 구성: 그림책 읽어주기에 관심 있는 만 55세 이상의 할머니 11명
- 도서관 역할: 그림책 및 활동 재료 지원, 참여자 모집, 봉사단 보수교육 등의 지원 활동 기획

<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추진 일정 >



2) 세부내용

(1) 활동 개요

가. 할머니와 정겨운 책놀이 활동

- 운영 기간: 4월~7월, 9월~12월, 수요일 16:40~17:00
- 참여 방법: 온라인 사전 신청,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
- 운영 내용: 도서관 방문 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 진행

나. 도서관 책놀이터에서 놀자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

- 운영 기간: 4월~11월, 수요일 10:30~11:00 그림책 읽어주기 진행
- 참여 방법: 매년 초 인근 유아교육 기관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
- 운영 내용: 유아의 연령에 맞춰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책 두 권을 선정하고 손유희와 함께 읽어주기

(2) 자원 봉사자 보수교육으로 지식 쌓기

- 운영 일자: 2025. 8. 29./9. 15. (2회)
- 운영 대상: 그림책 읽어주기 자원 봉사자
- 운영 내용: 자원 봉사자의 기본자세와 그림책으로 아이와 소통하는 법,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 지도

(3) 사서와 자원 봉사자(활동가) 간의 활발한 소통

- 사서: 활동 안내 및 문의는 SNS 단체방을 통해 소통하고, 책 읽어주기에 관한 도움이나 궁금한 점은 정기 모임에서 소통함
- 활동가: 매월 정기 모임에서 정한 주제의 그림책을 골라서 읽기와 발문을 연습하고, ‘나라면 이런 독후 활동...’을 소개함

3) 활용 도서

10월까지 총 32권을 읽고 활동함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우리 할머니들은 바쁘시다. 손자·손녀 돌보랴, 집안에 아픈 분 간호하랴, 대체로 책 읽을 시간을 내기 힘들어 보였다. ‘책할머니 봉사단’의 활동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5년 차가 되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분이 많았고 아이들도 잘 모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와해되는 분위기였다. 2025년 어린이실 담당 사서는 특단의 조치로 ‘책할머니 그림책 모임’을 만들었다. 사서가 책 읽기의 팁과 독후활동을 준비하고, 책할머니들은 그림책을 한 권씩 골라 서로에게 소개하고 생각을 공유하였다.

처음에는 회원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했지만 모임 횟수와 비례하여 자신감도 늘고, 독후활동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개선하였다.

2024년에는 4월~7월, 9월~11월의 수요일 오후에만 ‘책 읽어주기 활동’을 했지만, 올해는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분이 많아 오전에는 유아교육 기관의 원아들에게, 오후에는 도서관에 찾아오는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운영 기간도 12월까지로 확대했다.

‘책 읽어주기 활동’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 활동가에게도 소통하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Tips

- 할머니봉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개별 회원에게 관심 갖고 고충이나 기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 도서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봉사단원 간의 소통과 단합, 담당사서의 관심과 격려, 양질의 그림책 추천, 준비된 독후활동지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소감



담당자 소감

근무 시간을 쪼개 그림책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부담되었지만,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속상해할 때 할머니들이 뭐든 다 좋다고 다독여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한 아이들이나 자원 봉사자와의 교류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을 위해 그림책을 더 많이 접해야겠다. 오늘도 누군가 반납한 그림책을 괜히 다시 펼쳐 본다.

자원봉사자 소감

이*숙: 미래의 손자·손녀에게 할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글을 줄줄 읽기만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가볍고 쉬운 독후활동도 하고 있어요. 집중하지 않던 아이들도 그림책을 읽어줄 때 집중해서 듣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노력할 생각이예요.

부록 - 홍보물



하반기 수강생 모집 공고 홍보물



자원 봉사자 참가자 모집 공고 홍보물



동아리 회원 모집 공고 홍보물

 부록 - 활동사진



책 읽어주기 활동



책 읽어주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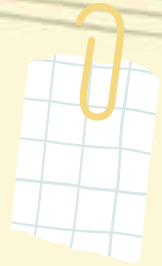
04

부평구립 갈산도서관

“책으로 잇는 마음,
함께 자라는 ‘책 읽어 주세요’”

- 부평구립 갈산도서관 사서 김진아

- 기간 2025년 6월~12월
- 장소 갈산도서관 어린이자료실
- 대상 유아 6~7세
- 인원 241명(누계 15회)
- 내용
 - 사서, 청소년 봉사자의 그림책 읽어주기 및 관련 책놀이 프로그램 진행
 - 단체 견학 및 일반 이용자를 위한 비정기 ‘책 읽어 주세요’ 운영
 - 1층 자료실을 활용한 그림책 전시 및 독서퀴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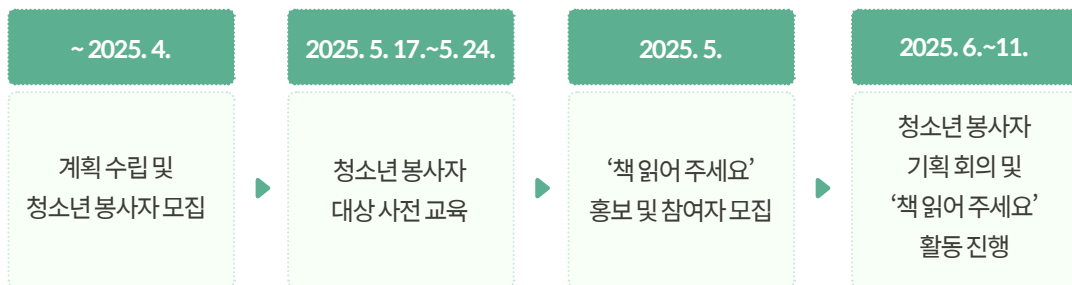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함께하는 1:1 책 읽어주기 활동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책을 통해 소통하고 상호작용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및 정서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 운영

본 기관에서는 연간 활동할 청소년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어린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관련 책놀이를 진행하는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12명을 선발하여 주제와 그림책 선정, 책놀이 준비 및 진행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직접 맡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와 성취감 증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세부 추진 일정 >



1) 청소년 봉사자 교육

-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책놀이 지도사와 함께 책과 놀이를 통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배우고,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방법을 익혀 주도적인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그림책 선정 및 독후활동 기획 모임을 가졌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책 읽기 도움자료 또북또북’을 활용하여 주제도서를 선정하고 관련 책놀이 활동을 기획하였다.

<청소년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일시	내용	활용도서(또북또북)
5.17.(토) 10:00~12:00	- 그림책 이해 -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오감 표현하기, 미술 표현하기 활동	- 당신의 가방 안에는? / 이주미 - 톡 / 언주
5.24.(토) 10:00~12:00	- 손유희 동작 배우기 - 그림책을 활용한 독후활동 - 호랑이 생일 놀이, 민화 족자 만들기	- 호랑이 생일날이었다 / 강혜숙



사전 교육 활동



프로그램 기획 회의

2) '책 읽어 주세요' 정기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에게 책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고자 6~7세 유아 10명을 모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1:1로 진행하였다.
- 청소년 봉사자들은 크기가 큰 '또북또북'을 활용해 주제도서를 읽어 주었다. '또북또북'에는 말의 높낮이와 표현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어 더욱 생동감 있게 낭독할 수 있었고, 어린이의 집중력과 흥미도 높일 수 있었다.
- 아이들의 집중도를 고려해 1시간 동안 프로그램 소개 → 대표 도서 읽어주기 → 독후활동 → 개별 희망 도서 읽어주기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책 읽기와 다양한 활동이 결합하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이어졌다.

<'책 읽어 주세요' 시간표>

구분	내용
9:30~10:00	진행 자리 및 준비물 세팅, 리허설 및 준비
10:00~11:00	프로그램 진행(소개, 주제 그림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등)
11:00~11:30	프로그램 정리 및 다음 활동 공지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활동 내용>

일시	도서(또북또북)	주제	독후활동
6.14.(토)	당신의 가방 안에는?	나의 취향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7.12.(토)	오늘도 맑음	날씨	나만의 투명 우산 만들기
8.9.(토)	톡	물감	캔버스 물감 이름 액자 만들기
9.13.(토)	불꽃머리를 펼쳐라	생일	미니 양초 만들기
10.11.(토)	딩동 거미	곤충	곤충 도안 표본 만들기
11.8.(토)	(진행예정)		



프로그램 진행 모습

3) 비정기 ‘책 읽어 주세요’ 운영 및 독서퀴즈 진행

-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단체 견학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을 진행하였다. 노란 앞치마를 입은 성인 자원 활동가의 참여를 통해 도서관을 지역사회 독서의 장으로 활성화하였다.
-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에서 만든 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하여 참여를 독려하였고, 방학에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주제도서 전시 및 그림책 관련 독서 퀴즈를 진행하여 관심을 유도하였다.
- 여름 방학에 1주씩 총 3회차를 진행하였으며, 겨울 방학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 모습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하면서 단순히 책만 읽어주는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에게 책을 소개하고 독서를 장려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대한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청소년 봉사자는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운영자로 성장하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독서 문화가 형성되었다. 청소년 봉사자가 참여한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인천광역시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부문 시장상을 받으며 지역사회 기여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정기 프로그램이 1:1 책 읽어주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참여 아동수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비정기 활동을 조직하여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다. 또한 매년 새로운 봉사자가 참여함에 따라 지속적인 초기 교육과 지도가 필요했으며, 주제와 활동을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림책의 난이도와 활동 수준을 조율하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했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Tips

- 전문 인력이 아닌 청소년 봉사자가 진행하는 활동이므로,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과 그에 맞는 책 놀이를 기획할 때는 담당자의 충분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 다수의 참여자에게 책을 읽어 줄 때 또박또박처럼 큰 그림책을 활용하면 글자와 그림이 잘 보여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할 때 청소년과 어린이 모두 이름표를 착용하면 서로 이름을 부르며 상호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감과 참여도가 높아진다.

소감



담당자 소감

‘책 읽어 주세요’는 단순한 독서 시간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행동이 책 읽는 즐거움뿐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관계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와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원 봉사자 소감

- ① 조*우: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 준다는 게 처음에는 많이 떨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저도 읽어 주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 ② 문*린: 친구들과 어떤 주제로 할지, 무슨 활동을 할지 정하는 시간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걸 직접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해 주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부록 - 홍보물



2025년 참여자 모집 홍보물



'책 읽어주세요' 활동 결과물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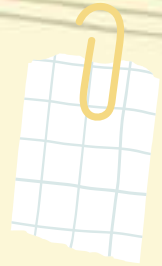
여수시립 이순신도서관

“함께 읽어요, 함께 자라요”
자원 활동가가 찾아가는 ‘책 읽어 주세요’”

- 여수시청 도서관운영과 행정 6급 김주희



- 기간** 2025년 4월~11월 (주 1회 운영)
- 장소** 참여 기관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6개소
- 대상** 관내 어린이집 6개소 영·유아 6~7세
- 인원** 3,159명 (258회 누계)
- 내용**
 -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자원 활동가 파견
 - 그림책 교육지도사, 그림책 놀이지도사, 동화구연 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자원 활동가 선정
 - 그림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언어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
 - 자원 활동가 대상 교육을 통해 책 읽어주기 심화 기법과 다양한 독후 활동을 숙지함으로써 전문 활동가로서의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어린 시절의 독서는 상상력과 언어 능력, 사회성, 감수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평생의 독서 습관과 긍정적인 학습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디지털 매체 중심의 여가 활동이 늘어난 시대에 영유아에게 책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수시립 이순신도서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역량 있는 자원 활동가를 파견하여 어린이에게는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관에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양질의 도서 선정에 도움 될 가이드를 제공한다. 나아가 도서관과 영유아 교육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1) 자원 활동가 및 참여 기관 모집 및 활동

자원 활동가 및 참여 기관 모집·선정 후 자원 활동가 대상 사전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6개소(각 기관 2개 반)에 주 1회 자원 활동가를 파견하여 그림책 읽어주기와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다.

여수시립도서관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회원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이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여 그림책 선정과 손유희 만들기, 색칠공부 등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연구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실감(AR·VR 등) 콘텐츠 기반 독서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세부 추진 일정 >



참여기관 및 자원 활동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하반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책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본 자원 활동가는 보람을, 참여 기관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은 꿈을 키우는 상호작용이 일어나 프로그램의 취지가 잘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도별 프로그램 진행 관련 통계 (최근 5년)>

구분	참여 횟수	참여 기관 수	자원 활동가 수	참여자 수	비고
2021년	197회	5개소	11	2,904	
2022년	250회	5개소	10	3,306	
2023년	304회	7개소	11	5,017	
2024년	278회	6개소	8	3,653	
2025년	258회	6개소	6	3,159	10월 말 기준



‘책 읽어주세요’ 자원 활동가 활동 모습



‘책 읽어 주세요’ 자원 활동가 활동 모습



‘책 읽어주세요’ 자원 활동가 활동 모습

< 자원 활동가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총 3회) >

회차	날짜	교육내용	비고
1차	2025. 3. 28.	살아있는 책 읽기! 어떻게 읽어줘야 할까? -발성, 화술, 구연동화를 위한 손유희 등	활동 전 교육
2차	2025. 7. 2.	연령에 따른 다양한 그림책의 접근방법 -주의집중, 상황·감정에 따른 목소리 표현	역량강화교육
3차	2025. 10. 21.	연령에 따른 그림책 선정 심화과정 -화술능력심화, 그림책으로 마음 어루만지기 -독후활동 및 수업지도안 작성법 등	심화 교육





자원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그림책 읽기 활동은 아이들에게 몰입 경험을 제공하고 표현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만남 횟수가 늘수록 아이들이 ‘책 읽어 주세요 선생님’을 기다릴 정도로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고,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등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자원 활동가는 자기 성장과 보람을 체험하였으며, 참여 기관의 만족도가 향상하였다. 특히 다양한 책을 접한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되고, 정기적인 방문이 아이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자극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신규 봉사자가 확충되어야 하고, 재료비 지원 확대와 봉사자 교육 강화 등의 제도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참여 기관과 협의하여 연속형 프로그램 구성 및 우수 사례 발굴로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 연령대별 도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활동 전 추천 도서 리스트를 공유하면 운영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 기관과 봉사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 운영에 도움이 된다.

- 자원 활동가간의 소통 문제도 중요하므로, 역량강화 교육만이 아니라 봉사자 정기 간담회나 워크숍 등 자원 활동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봉사 지속률이 높아져 인력 확충에 도움 될 것이다.


소감
**담당자 소감**

참여 기관의 수요에 비해 자원 활동가가 부족하여 한 사람이 주 2회씩 파견 나가는 상황이다. 약속된 날이면 ‘책 읽어 주세요’ 선생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과 만나는 즐거움과 보람으로 힘든 일정을 이겨 낸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사서인 담당자로서 책을 통해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자원 활동가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참여자 소감

- ① 박*진 : 서먹해하던 친구들이 그림책 읽기와 활동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성장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 ② 박*영 : 걱정 가득 설렘 조금으로 시작했어요. 좀 더 잘할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혼자 뿌듯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걱정보다 더 큰 설렘으로 예쁜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간답니다.
- ③ 송*경 : 처음엔 어색했지만 만날수록 그림책에 스며드는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웠고 제 마음은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봉사의 묘미겠지요. 내년엔 더 좋은 여건에서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④ 박*경 :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 보람을 느꼈고, 물론 저도 같이 성장하였어요. 재료비가 한정되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음이 아쉽고, 더 많은 기관의 아이들이 책 읽기 혜택을 누리면 좋는데 봉사자가 매년 줄어들어 안타깝습니다.
- ⑤ 김*정 : 책을 통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이야기 속에서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짧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봉사자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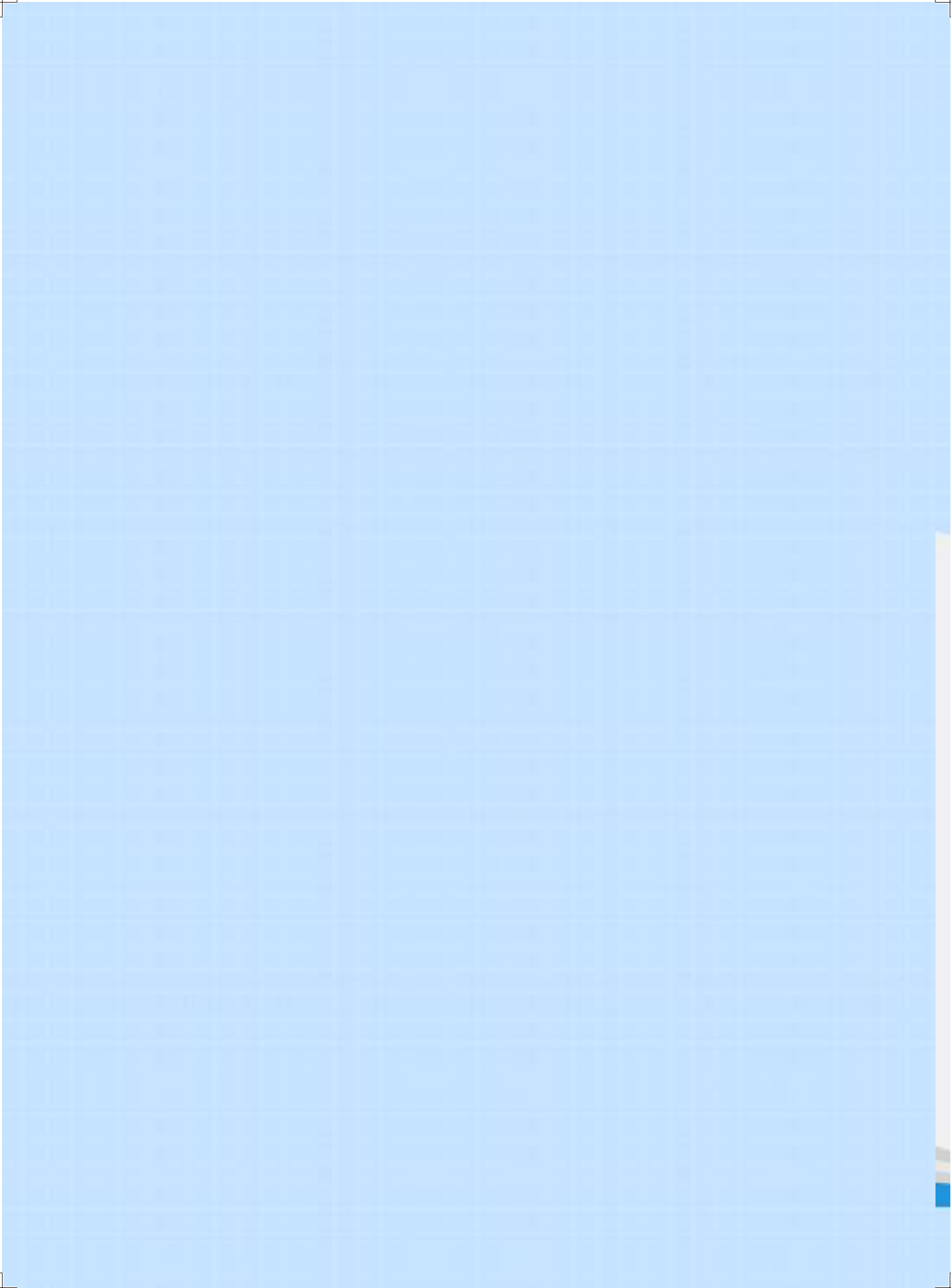
 **소감**

참여자 소감

- ⑥ 박애* : 원에 도착하면 서로 먼저 안아주겠다며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다가오는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이 크답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만 제 마음의 위안이 더 크네요.
- ⑦ 나*진어린이집 (참여 기관):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록 - 보도자료 및 홍보**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우수 사례집

학교·작은도서관

01. 강릉여자고등학교 52

책으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책 읽어 주세요'

02. 강릉 성덕초등학교 58

아침 '책 읽어 주세요'를 통해
학교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

03. 남양주시 장내중학교 64

책으로 이어진 마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책 읽어 주세요'

04. 양산 덕계초등학교 72

오늘도, 책 읽어 주세요!

05. 울산 대송고등학교 76

학교와 지역을 잇는 남독 프로젝트
'책 읽어 주세요'

01

강릉여자고등학교

“책으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책 읽어 주세요’”

- 강릉여자고등학교 사서 정성희



-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3:00~14:30
2025년 8월 5일(화) 13:00~14:30
- 장소 초등학교 교실
- 대상 늘봄교실 참가학생
- 인원 40명
- 내용 - 초등학교 늘봄교실과 연계한 ‘책 읽어 주세요’ 활동
- 학생에게 그림책을 읽어 준 뒤 만들기 및 생각
나눔 교감 활동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2024년에 참가한 학생들은 뿌듯함과 진행에 대한 아쉬움을 평가하면서 기회가 다시 오면 더 잘 읽고 소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다짐을 실천하고, 나눔과 소통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를 만들고자 책 읽어주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운영

1) ‘책 읽어주세요’ 활동 기관 선정 및 일정 정하기

기획 단계의 첫 결정은 장소와 대상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기존에 진행했던 학교와 새로운 곳을 두고 고민하였으나 전에 만났던 학생들과 진행하면 부담이 줄 것 같다는 참여자의 의견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내년엔 꼭 와달라고 했던 담당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존 학교의 늘봄교실 학생을 만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활동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초등학교 늘봄교실 운영체계가 엄격해져서 학기 중 모든 요일이 외부 방과 후 수업으로 뺏겨있었다. 학기 중에는 도저히 일정을 잡을 수 없어 여름 방학으로 늦춰야 했는데, 참여자에게 짧은 방학 기간에 일정을 빼라고 요구하기 미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정을 들은 학생들이 모두 흔쾌히 방학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진행할 수 있었다.

2)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사전 준비 및 시연하기

2024년에 활동했던 2학년 학생들이 올해 처음 참여한 1학년에게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전에 알고 가면 좋은 세 가지 정보에 대해 교육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책을 읽어 주기 전에 먼저 신뢰감을 형성하자 ② 책 읽는 속도 조절 등을 위해 읽어 줄 내용을 미리 연습하자 ③ 활동 후 가벼운 생각 나눔과 마무리 활동을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책 읽기 시연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활동 평가에서 후속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활동 내용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했다. 먼저 개인 및 소그룹 활동에서 각자 준비한 책을 읽어주고 소감을 나눈다. 이후 다 같이 모인 대그룹에서 선정 도서를 읽어준다. 대그룹에서 읽어줄 도서는 독후 활동까지 고려하여 『선생님은 몬스터(피터 브라운)』로 선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독후 활동은 종이비행기 만들기와 날리기 게임을 진행한다.

3)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시행하기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은 여름 방학 중에 총 2회 진행하였다. 3주가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학사 일정 차이 등으로 날짜를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1, 2회 모두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다.

2024년에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지만, 올해는 공사 때문에 빈 교실에서 진행했다. 먼저 소그룹별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고 책 읽어 주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다 같이 모인 대그룹에서 주제 도서 읽기와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때 참여자들은 초등학생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과 소통을 이어갔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자 만든 종이비행기를 날려서 정해진 공간에 넣으면 추가 간식을 제공하는 게임으로 진행했는데, 모두 진지하게 열심히 참여해 한층 더 즐거웠다.

 부록 -활동사진



책 읽어주기 사전 활동 모습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비록 2회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책에 관한 소감을 나누고 활동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과 관계 맺기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책 읽기는 혼자 읽을 때보다 책 읽어주기, 책 수다하기, 독서토론 등의 활동과 연계할 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했던 ‘책 읽어 주세요’ 역시 독후 활동과 연계하니 더 즐겁고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들뜨게 만든 요인으로 즐거움과 뿌듯함을 꿈꿀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능하다면 횟수를 늘리고 꾸준히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들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대상과 시간을 조율하여 실제로 만남을 성사시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Tips

- 책 읽어주기와 소감 나눔에 그치지 않고, 만들기와 게임을 하니 더욱 즐거운 활동이 되었다.
(만들기 재료 및 간식 준비)
- 초등 늘봄 선생님은 대부분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을 환영한다고 한다. 다만 대부분 방학 중 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소감**



담당자 소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활동이다 보니 준비 과정부터 여유로웠다. 새로 시작하는 1학년을 2학년이 이끌어 주고 정보도 제공하니 든독함도 생겼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마음과 눈높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참여자 소감

- ① 박*비: 활동을 마친 뒤 한 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대장 언니, 재밌었어요.” 그림책 한 권을 읽고, 종이비행기 하나 함께 접었을 뿐인데, 아이들과 함께한 이 짧은 접점이 따뜻하게 남는다.
- ② 이*연: 처음에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지만, 초등학생 친구들의 맑은 눈을 보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 ③ 심*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내가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꼈다.
- ④ 이*은: 뿌듯했던 점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건네고 장단을 맞추며 또래 친구들과 말문을 트게 도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 ⑤ 김*림: 평소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교육 관련 진로를 고민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교육 쪽으로 가야겠다는 확신과 방향을 잡게 되었다.
- ⑥ 이*윤: 동아리 활동을 하며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 활동이었다. 영문 모를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교사가 마냥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 ⑦ 서*지: 비행기 날리기 활동에서 몇몇 친구의 비행기가 잘 날지 않아 속상해하자 다른 친구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02

강릉 성덕초등학교

“ 아침 ‘책 읽어 주세요’를 통해
학교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 ”

- 성덕초등학교 사서교사 차예리



- 기간 2025년 5월~7월 (목) 8:40~9:00, 1학기 총 9회
2025년 9월~11월 (목) 8:40~9:00, 2학기 총 10회
- 장소 2학년 학급 교실
- 대상 2학년 3개 학급 약 70명
- 인원 누적 인원 약 950명
- 내용 본교 6학년 ‘꿈자람’ 도서부 학생들이 목요일 아침이면 2학년 교실에 찾아가 그림책을 읽어 주고, 책 내용으로 퀴즈를 내는 프로그램 운영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본교 주위에는 작은도서관, 교육문화관, 공공도서관이 있고, 학교 1층에도 학교도서관이 있어 학생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책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책에 대한 흥미도가 높지만, 전반적으로 책과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많고 만화책 중심의 독서 편향이 강하며 문해력도 낮은 편이다.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의 비중도 적지 않아 학생의 문해력과 인문 소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책과 동화책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는 독서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문해력과 인문교육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프로그램 운영

- 6학년 도서부 학생들이 2학년 교실에 찾아가 그림책(빅북)을 읽어주고, 책 내용으로 퀴즈를 내는 활동을 진행했다.
- 활동 그림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또북또북 활동 자료를 비롯해 평가가 좋은 그림책으로 선정하였다.
- 프로그램 초반에는 2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서로 어색하고 낯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라포르가 형성되었고 점차 친밀도가 커지면서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 초반에는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2학년 학생들의 참여 태도가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학사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면 “오늘은 왜 책 읽어주는 누나들이 안 와요?”라고 물어보는 등 아침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게 되었다.

-6학년 도서부 학생들도 처음에는 책 읽어주는 것이 익숙지 않아 많은 연습이 필요했지만, 점차 능숙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게 되었다. 나아가 읽어주고 싶은 책을 고르고, 퀴즈를 만드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는 등 책을 통해 성장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가는 모습을 보였다.

<함께 읽은 그림책>

『마음버스』 『그럴 때가 있어』 『인사를 나눠드립니다』 『우주전사 복실이』 『민들레를 먹었어』 『동물 목욕탕』 『알사탕』 『이상한 엄마』 『달사베트』 『공공공』 『오싹오싹 팬티』 『할머니의 용궁여행』 『개욕탕』 『사자마트』 『수박 수영장』 『오싹오싹 편의점』 『삼거리 양복점』 『튤립 호텔』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2학년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는 태도와 흥미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 큰 성과이다. 실제로 아침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2학년 학생의 그림책 대출률이 약 1.5배로 증가했다. 단조로웠던 아침 활동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6학년 도서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점차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책임감과 성취감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정해진 요일이 공휴일이나 학사일정과 겹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도서부 인원이 적어서 결석자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도서부 학생을 많이 선출하여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 일반 그림책은 크기가 작아 빅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많이 구매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다양한 빅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Tip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부 학생이 고학년이더라도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 사전에 1차로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그림책 고르는 법, 읽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선정된 그림책을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읽는 연습까지 봐주어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것에 신경 쓸수록 학생의 능력은 향상되므로 지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감

담당자 소감



책 읽어주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고 있더라도 사서교사 한 명이 많은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도서부 학생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면서 저학년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책을 매개로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하면서 저학년 학생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고학년 도서부 아이들에게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다.

소감

참여자 소감

- ① 도서부 학생 1: 동생들이 “언니, 다음 책 뭐예요?”, “누나, 다음에 더 재밌는 책 읽어줘!”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도서부를 한 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 ② 도서부 학생 2: 아침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면 뭔가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껴요. 특히 저는 마지막에 퀴즈를 내는 활동이 재밌어서 좋았어요.
- ③ 도서부 학생 3: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고 퀴즈를 열심히 풀려고 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뿌듯했어요. 처음엔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아이들이 잘 들어준 덕분에 이제는 편하게 잘 읽게 된 것 같아요.
- ④ 도서부 학생 4: 1년 동안 도서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후배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어서 재미있었어요.

부록 - 활동사진





학급 교실에서 책 읽어주는 모습

 **부록 - 홍보물**



자원활동가 모집 홍보물

03

남양주시 장내중학교

“책으로 이어진 마음
지역아동센터에서 ‘책 읽어 주세요’”

- 남양주 장내중학교 사서교사장유진



- 기간 2025년 7월 28일(월)~29일(화) 11:30~14:30
- 장소 꿈이룸지역아동센터
- 대상 지역아동센터 1~5학년 아동
- 인원 활동 참여 학생 9명 / 대상 아동 38명
- 내용
 - 문화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책 읽어 주세요’ 활동 도서 구매하기
 - 독서캠프와 연계해서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연습 진행
 - 대상 연령(1~5학년)에 적합한 독후활동 기획 및 운영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2023년에 처음 진행했던 ‘책 읽어 주세요’ 활동 당시 대강당에 유아와 보호자 50여 명을 모아놓고 멀리 떨어진 무대에서 마이크를 통해 작은 그림책을 읽어주었던 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이듬해에는 지역아동 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 활동을 소규모로 진행했고, 올해도 같은 공간에서 초등학생과 만났다. 공간이 작아진 만큼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책 읽어 주세요’가 단순한 낭독 활동을 넘어 세대 간 독서 문화가 연결되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2. 프로그램 운영

1) ‘책 읽어 주세요’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 우리 학교는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사업의 지원을 받아 ‘문화체험활동-가자! 동네서점! 가자! 영화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학생 20명 중의 10명이 ‘책 읽어 주세요’ 활동에 함께 했다.
- 활동은 동네서점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그림책 코너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골랐는데 왜 그 책을 읽고 싶은지, 누구에게 읽어주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문화체험활동 가자! 동네서점! 가자! 영화관!



‘책 읽어 주세요’에서 활동할 그림책을 선정하고 있다.

- 책 선정 후에는 독후활동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야기의 주제를 표현하는 만들기 활동을 결정해 포스터와 함께 꿈이룸지역아동센터로 보내고, 활동 날짜를 조율하였다. 아동센터에서는 포스터를 게시해 아이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 활동 전, 학생들은 가정에서 책 읽는 연습을 하였고, 여름방학에 열린 독서캠프에서 다시 서로의 낭독 모습을 모니터링 하였다. 책을 읽는 자세, 책과 청중의 거리, 표정, 목소리 톤까지 세세하게 피드백하며 자연스러운 읽기 방법을 익혀갔다.



독서캠프에서 『도서관 고양이』 책 읽기를 연습하고 있다.



독서캠프에서 『백설기 공주』 책 읽기를 연습하고 있다.

2) ‘책 읽어 주세요’ 활동

- 독서캠프 후 드디어 학생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첫째 날에는 『두근두근 편의점』 『토끼구름토끼』 『도서관 고양이』 『넌 나의 행운이야』를 읽은 뒤 하바리움 볼펜 만들기 독후활동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마술 연필』 『시계탕』 『백설기 공주』 『엉덩이 책』 『안돼!』를 읽고 DIY 팔찌 만들기 활동으로 마무리했다.



김*환 학생이 『안돼!』를 읽고 있다.



이*원 학생이 『엉덩이 책』을 읽어주고 있다



하바리움 볼펜 만들기 독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DIY 팔찌 만들기 독후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활동 전에 “오늘은 깜짝 독서퀴즈가 있어! 우리가 읽어주는 책 안에 정답이 숨어 있지~ 정답을 맞히면 작은 간식을 선물로 줄게!”라고 예고했다. 이 작은 장치 덕분에 아이들은 책에 더 몰입했고, 이야기 속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웠다.



깜짝 독서퀴즈를 진행하여 집중도를 높였다.



김*환, 서*효 학생이 깜짝 퀴즈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 연속 활동하다 보니 서로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작년에 읽어줬던 책 기억나요!”라고 말하며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3) 특별한 책소개

-올해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 장내중학교 3학년 ‘그림책 제작반’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그림책 4권을 함께 선보인 것이다. 그중 한 권은 ‘책 읽어 주세요’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 책을 읽는 학생도, 듣는 아이들도 한층 더 진지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3학년 유*연 학생이 제작한 『콧대높은 지우개』를 읽어주고 있다.



조*울 학생이 제작한 『도마뱀의 여름휴가』를 읽어주고 있다.



이*인 학생이 제작한 『여름휴가』를 읽어주고 있다.



염*윤, 이*윤, 서*우 학생이 제작한 『알파카의 팬티를 찾아서』를 읽어주고 있다.

-이들간의 프로그램이 끝나자, 학생들의 얼굴엔 성취감과 보람이 가득했다. ‘책 읽어 주세요’는 단순한 낭독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책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올해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돋보였다. 서점에서 책을 직접 고르고, 독후활동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실현하며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 주체로 성장했고, 모든 과정이 배움의 장이 되었다. 특히 책 읽기 연습과 독서캠프 모니터링을 통해서 낭독 능력과 표현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처음에는 낮을 가리고 작은 목소리로 읽던 학생도 점차 또렷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한 그림책을 읽어준 것이 매우 뜻깊었는데,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어린 친구들 앞에서 읽으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와 두 해 동안 이어온 연계활동 덕에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책으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Tips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 담당자와 활동 장소, 시기, 내용, 참가 인원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서로의 기대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사전 조율을 세심하게 해야 모두가 만족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소감



담당자 소감

올해 ‘책 읽어 주세요’ 활동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3학년 창체동아리 ‘그림책 제작반’ 학생들이 만든 그림책을 함께 읽었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출판된 책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시선과 언어로 써 내려간 이야기여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더 공감하고 흥미로워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그림책을 더 많이 소개하고, ‘책 읽어 주세요’ 활동도 더 활발히 이어 나가고 싶다.

참여자 소감

① 이*인: 제가 읽은 『도서관 고양이』와 제가 직접 제작한 『여름방학』 책을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잔잔한 내용의 동화책이라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기뻐요. 3년 동안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을 하며 쌓은 추억은 제게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② 서*효: 『백설기 공주』를 읽어주고, 독서 퀴즈의 MC도 맡았어요. 처음 진행하는 자리라 많이 떨렸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 즐겁게 참여해 줘서 저도 정말 신났습니다. 책을 읽고 함께 웃는 그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③ 이*원: 저는 『엉덩이책』을 읽었어요. 세상의 다양한 엉덩이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설명 책이라 글이 많아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독서 퀴즈를 준비했는데 바로 정답을 맞힌 아이가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부록 -홍보물



‘책 읽어주세요’ 활동 포스터

04

양산 덕계초등학교

“오늘도, 책 읽어 주세요!”

- 양산 덕계초등학교 전담사서 이미영



📖 기간 2025년 3월~12월(목) 08:40~08:55

📖 장소 1학년 교실

📖 대상 1학년 학생 모두

📖 인원 2,400명 (누적 인원)

📖 내용 - 목요일 아침이면 학부모 인문학 동아리 회원들이 1학년 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지속적인 활동은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촉진하였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다.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학부모 인문학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여 체계적인 연수 및 협의를 통해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흥미 있는 동화 구연을 하고 있다. 집중하기 어려운 1학년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졌다며 만족감을 보이는 교사가 늘고 호응도 좋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 프로그램 운영

1) 운영 방법 및 내용

- 매주 목요일 아침 1교시 수업 전 15분간 1학년 대상 그림책 읽어 주기
- 학부모 인문학 동아리에서 책을 선정하여 동화 구연
- “함께, 더 즐거운 우리” 1학년 언니, 오빠, 형이 유치원생에게 책 읽어 주기

2)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 책 읽어 주기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더욱 친밀한 관계 형성
-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1학년의 집중력이 향상됨

3) ‘책 읽어 주세요’ 활성화를 위한 지원

2017년부터 ‘책 읽어 주세요’를 운영하고 있으며, 덕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학부모 대상 동화 구연 자격증 연수를 실시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과 협력하여 학부모 독서교육 연수를 진행하는 등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활동을 지속함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1학년 학생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책을 접하는 경험 자체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양한 책의 문장을 들으며 어휘가 확장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집중하는 힘도 길러졌다.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진행 덕분에 아이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즐기고, 감정 이입을 하며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학부모의 참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학교는 우리 가족과도 연결된 소중한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책 읽어 주세요’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독서교육에 관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또북또북 등 빅북을 활용한 ‘책 읽어 주세요’를 활성화하면 더 유익할 듯하다.



책 읽어주세요 활동

 **소감**



담당자 소감

하루 10분 책 읽어 주기만으로도 아이의 언어 능력, 사고력, 정서적 안정감이 함께 자라는 효과를 실감하면서, ‘책 읽어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소감

- ① 이*경 (자원 봉사자):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시간은 저를 채우고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알알이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나의 목소리로 책을 전하는 일은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다름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을 읽어주는 순간만큼은 모든 아이의 엄마입니다.
- ② 박*심 (자원 봉사자): 한 번씩 학교에서 아이들과 눈 맞추며 책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눈 반짝 반짝하며 바라보는 아이들 덕분에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학부모님이 참여해서 선생님의 노고와 어려움을 공감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해 가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 ③ 황*선 (1학년 교사): 1학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기에, 학부모님께서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활동은 교사로서도 매우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책을 접하는 경험 자체가 정서적인 안정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④ 박*윤 (1학년 학생): 책을 읽어주니까 뭔가 포근했다. 그리고 내가 읽는 것보다 재미있었다.

05

울산 대송고등학교

“ 학교와 지역을 잇는 낭독 프로젝트
‘책 읽어 주세요’ ”

- 대송고등학교 사서교사 김지형



- 기간 2025년 5월 31일(토) 10:00~13:30
- 장소 울산동부도서관
- 대상 지역의 유·초등 어린이 15명 내외
- 인원 130명
(2023년~2025년 참여한 도서부, 지역 어린이 인원)
- 내용 -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전 낭독 전문 강사의
특강을 진행하여 낭독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
고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함

1. 추진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학교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이야기가 만나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 내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단순 이용자가 아닌 독서문화 확산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에 대송고 도서부 동아리는 울산의 대표 한글학자인 최현배 선생님을 주제로 ‘외솔 바로 알기 학생동아리’ 공모 사업을 2년째 운영하며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책과 사람, 세대를 잇는 소통의 경험이었다. 책을 읽어주는 봉사자와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넘어서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프로그램 운영

2025년에도 ‘외솔 바로 알기 학생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책 읽어 주세요’를 진행했다. 활동은 매년 ‘낭독 전문성 향상 특강’으로 시작하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책소리 낭송·낭독 특강’을 마련해 시 낭송 발성법과 표현력을 익혔다.

이를 기반으로 외솔 최현배 선생의 직업 정신과 연결하여 진로와 꿈을 주제로 한 그림책 낭독 활동을 이어갔다. 『난 남달라』 『소원을 그리는 아이』 『매튜의 꿈』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빵이 되고 싶은 토끼』 『그래도 꼭 해 볼 거야』를 읽어주고 독후활동으로 세종대왕, 최현배 선생의 직업 정신을 교육하고 직업 쉐이커 키링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지난해에 참여한 2학년 학생들이 후배를 이끌며 리더로 성장한 모습이 돋보였다. 후배들은 선배의 모습을 보며 낭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서로 격려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뢰와 유대감이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책 읽어 주세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낭독 실력뿐 아니라 자신감과 책임감, 따뜻한 마음의 성숙을 경험했다. 지역 도서관 담당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재시행을 요청하는 등 학교-지역-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3. 프로그램 성과 및 아쉬운 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존감과 진로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활동 후 작성한 학생 소감문에는 “아이들이 웃을 때 정말 뿌듯했다”, “책으로 어린이와 대화할 수 있는 게 신기했다”라는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반영되어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낭독 봉사를 통해 책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학부모와 지역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활동이 주말에 이루어져 참여율이 일정하지 않았고 학교도서관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진행하다 보니 어린이 참여자 모집, 운영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4. 프로그램 제언 및 소감



Tips

- 활동 전 낭독 교육은 필수이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를 고려한 낭독을 위해 발성·감정 표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읽기’보다 ‘전하기’의 마음이다. 학생들이 낭독을 통해 책의 감동을 전할 때 그 울림이 지역사회에 오래 남는다.
- 도서 선정 시 주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독도의 날, 환경의 날 같은 기념일, 한글, 꿈·진로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좋다.
- 지역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이다. 활동 전 기관 담당자와 충분히 소통해 공간·시간·대상 아동 정보를 미리 공유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동아리 중심으로 학생 리더를 양성하면 해마다 세대 전승이 가능하다.

 **소감**



담당자 소감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세대가 소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낭독에 서툴렀던 학생들이 특강을 통해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내고 어린이와 눈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문화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참여자 소감

- ① 학생 봉사자 1: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업적과 노력을 알려 줄 때 작년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실감나게 읽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책 읽어 주세요’ 전에 시낭송 수업을 받아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 ② 학생 봉사자 2: 선배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게 되었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을 알려줌으로써 나도 잘 모르던 선생님의 업적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 ③ 학생 봉사자 3: 한글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한글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바친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에 대해 잘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외솔 선생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 ④ 어린이 이용자: 언니, 오빠가 책을 읽어 줄 때 주인공의 동작을 재미있게 몸으로 표현해 줘서 책이 더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와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 ⑤ 지역도서관 담당자: 학생들의 낭독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습니다. 책을 읽어 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따뜻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도서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다른 기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부록 - 활동사진



2024 책 읽어 주세요 활동



2025 책 읽어주세요 활동



부록 -홍보물



2025년 프로그램 신청서 및 안내문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발행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편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행인 박주옥
주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홈페이지 www.nlcy.go.kr
전화 02)3413-4800
ISBN 978-89-6032-471-8

*이 우수 사례집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2025년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우수 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ISBN 978-89-6633-471-8